

# 정보통신사회와 인간관계

인간은 지금까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어 왔지만 이제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예컨대 요즘 우리는 컴퓨터통신의 대화방에서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정보를 나눈다. 그러다보니 익명의 정보통신을 통해 특정 개인을 모욕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개인의 주체성이 존중받고 나아가 민족문화의 주체성도 지켜나갈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金 東 一

〈이화여대 사회학과대 사회학과 교수〉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후 4백만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 오는 가운데 오늘날처럼 인간 세계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는 양상을 나타낸 적은 없었다. 요즘의 인간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급작스럽고 빠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금 혁명적인 변화의 와중에서 살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혁명의 과정을 학자들은 '정보(통신)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이전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겪은 적이 있다. 불의 발견이나 수레바퀴의 발명 등이 인간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주

도 했고 5~6천년 전에 시작된 농업 혁명은 문자의 발명과 함께 인간 사회에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농업혁명 이후 2백년 전에 시작한 산업혁명은 인류가 역사시대에 진입한 이후 겪은 두번째의 거대 혁명이었고 이것이 지난 2세기에 걸쳐 인류 사회에 끼친 변화는 역시 총체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구 사회에서 2백년 전에 시작한 산업혁명의 과정에 들어선 지 불과 한 세대를 조금 넘은 상태이고 이같은 급격한 산업화의 충격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가치와 산업 사회에서 대두하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아노미(anomie) 즉 무규범적 상황이 그 예의 하나이다.

##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공간 탄생

어쨌든 산업혁명의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1백년 전쯤에는 전기와 화학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명이 일어났고 50년 전쯤 시작된

정보통신혁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제3의 기술혁명이라 일컫는 지금의 정보통신혁명은 컴퓨터와 전기통신이 주축이 되어 인류 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량의 정보를 순식간에 창출·보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사회체계를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로 변모시키고 있다. 물론 이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도래를 의미한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이미 한 발을 들여놓은 정보화시대 또는 정보사회의 성격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학자들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정보사회를 이른바 탈 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 지칭하면서 그것은 그 이전의 산업사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사회로 규정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정보사회와 기존 산업사회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정보사회도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보사회는 전통적인 인간 상호작용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 관계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이것은 특히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에 의해 가능한 새로운 사회 관계의 출현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인간은 지금까지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통해 인간 관계를 맺어 왔지만 이제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예컨대 요즘 우리는 컴퓨터 통신의 대화방에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한다. 이러한 컴퓨터 통신을

통한 사람들의 만남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신속하게 정보 교환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곧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공간 즉 정보 공간(information space)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제 정보 공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적 발달은 정보의 디지털화와 결합해서 정보와 지식의 양적·질적 팽창을 극대화시키는 이른바 정보폭발(information explosion)현상을 낳게 되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산업혁명(2백년 전)과 전기·화학기술혁명(1백년 전) 그리고 정보통신혁명(50년 전) 등의 3대 기술혁명의 발발 시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요즘은 인간의 지식이 18~24개월만에 두배로 늘고 있으며 2010년이 되면 그것이 2~3주만에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하자면 그만큼 기술의 혁명적인 변화는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발발할 것이며 이것이 인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예컨대 몇년 안에 우주과학혁명, 유전 공학과 생명 과학의 혁명 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쉬운 일이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질서와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의 존속은 어떤 형태로든 안정된 규범과 윤리의 존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의 인간 관계는 어떠한 윤리

적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정보사회로 진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서도 CMC의 생활화와 함께 많은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예컨대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정보 공간을 통해 모 여대생에 대한 조작된 사생활을 게시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물론 이런 비신사적 행위는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까지 추궁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익명의 정보 통신을 통해 특정 개인을 모욕하거나 골탕먹이려는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은 PC통신의 특성상 자제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사생활침해 막을 법적 규제 필요

오늘날 인간 사회 질서의 기본 원칙은 상대방이 누구이든 인격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윤리적 명제에 귀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 원칙은 산업혁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천명한 바 있고 또한 연속적인 기술혁명에 따른 사회 구조의 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유효한 윤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말하자면 기술혁명, 지식혁명, 정보혁명하지만 인류의 기본 원칙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지켜져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임에 틀림없다. 사실 정보공간의 활용이 우리들에게 생활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윤리적 원칙은 더욱 더 중요해진다.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또는 기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우리들의 사생활이 침해받

을 수 있는 개연성도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도덕적, 법적 규제는 보다 엄격해져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로 예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항은 많은 정보의 흐름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는 것이다. 예컨대 요즘 각종 상업적 통신사업자들 가운데 일부는 폭력이나 성에 관한 자극적인 정보를 양산해서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은 실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한 정보 통신의 세계화와 함께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성 상품이 국경을 넘어 끊임없이 우리들의 안방으로 침투하고 있음에 대해 우리는 경계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성적 자극물을 정보공간의 시장에 띄워놓고 표현의 자유운운하는 파렴치한 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성 윤리의 확립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생존해오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과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더구나 성의 상품화는 대개 여성을 희생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적 퇴폐물의 보급은 차단되어야 함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구 사회는 성 윤리의 붕괴에 따른 가족 해체로 인해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많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주체성이 존중받고 민족 문화의 주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윤리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①7